‘나’라는 자존님이 죽어야 천당에 갈 수 있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식

성경 시편 82편 6절에 “너희들은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라고 씌어 있는데, 지존자가 하나님이죠? 그런 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죠? 또한 신명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니라.”라고 씌어 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여호와의 자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고로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틀림없는 것은, 사람들은 전부 아담과 해와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씌어 있는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씌어 있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에덴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었던 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틀림없다는 증거로 사람마다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데, 꿈이라는 것은 경험한 것을 재현하는 것으로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면 경험한 것이 핏속에 녹음되었다가 그 녹음된 것이 다시 생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날아다니는 꿈을 꾼다는 것은 날아다녀 본 경험 있는 피가 사람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후손인 고로 영원전서부터 영원무궁토록 날아다니던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피가 우리 후손 속에 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틀림없는 고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했죠? (아닙니다) 또 ‘내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라’고 했죠?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다른 이름을 부르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죠? 오늘날 성경 말씀대로 생활한다면서 십계명도 못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하나님이 사람

오늘날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천당 가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며 적은 수가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넓은 길을 가며 많은 사람이 간다.”고 성경에 씌어 있듯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뭘 믿는다, 하는 것은 마귀 짓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세상인 고로 마귀 종이 되는 인간들이 마귀의 역사에 많이 동조를 하고 많이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똥 위에는 똥파리가 앉죠? 똥 위에 나비나 벌이 가서 앉아요? 이와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고로 마귀에게는 죄인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에게는 의인들이 모여드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의인의 숫자가 적은 고로 적은 숫자가 구원의 길을 간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말씀이 씌어 있는데,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약대를 죽여서 가루로 빻아 실처럼 만든 후 구멍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천당은 죽어야 간다는 소리인데, 무엇이 죽어야 가느냐 하면 나라는 의식, 즉 자존심이 죽어야 갈 수 있는 고로 나라는 것은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마귀요, 죄가 되기 때문에 나라는 죄를 죽이고, 마귀를 죽여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이 뭔 줄 알아요? 죄가 뭔 줄도 모르고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생명과일이 뭔 줄도 모르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씌어 있는 고로 말세가 되도록 한 명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씌어 있지만 믿음이 뭔 줄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게는 영생의 영이 있기는 하지만 사망의 영인 마귀를 이겨서 죽이는 능력이 있는 영이 아니면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세주 조희성님

하나님이 마귀한테 6000년 전에 진 것도 모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왜 당신 자식인 여자들이 어린 아이를 낳을 때 고통당하다가 죽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져 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 상태가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전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마귀의 종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마귀한테 항상 지는 하나님인 고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한테 복종 안 하면 마귀가 죽이는 고로 죽지 않으려고 마귀의 말에 복종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신은 마귀 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이라는 건 받는 사람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선물이 되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어야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가 이 우주의 권세를 쥐고 있는 고로 “공중권세 잡은 신이 악신”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씌어 있는데, 악신이 마귀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신이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씌어 있으니 마귀가 하늘꼭대기에 있다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고 예수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 마귀가 있으니까 사탄이 떨어졌지, 마귀가 없는데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늘을 보고 ‘오, 하나님!’ 하는 건 마귀 종이요, 마귀새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는 “사울이 다메섹 고개를 넘어갈 때에 공중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 하고 부르는 소리에, 사울이 풀속에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주여, 뉘시니까~” 하고 물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늘에서 사울을 부른 게 분명한 사실이죠? 하늘에서 불렀으니까 예수가 하나님 신이야, 마귀 신이야? 마귀 신이라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를 물세례 줄 때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새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당시 세례 요한의 신관은 하나님이 하늘꼭대기에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지금도 사람들은 다 하늘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는 고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생각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고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하고 외쳤던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말씀은 짝을 맞춰봐야

세례요한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둔갑하였고 이것이 기독교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가 자기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였는데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이죠? 외아들이라는 말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 인고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되려고 힘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안 될 수가 없는 고로 하나님이 될까봐 독생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마귀 신을 받은 사람인 고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품안에 안길까봐 그걸 방지하는 방법으로 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세뇌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고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졌다고 세뇌 당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마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고로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짝이 없는 말씀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모았음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짝이 맞는 말이라야 여호와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지 짝이 안 맞는 말은 마귀 소리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이레 되는 날 쉬셨다.”는 말씀이 창세기서에 씌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러고 있지만 둘 다 틀린 말인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씌어 있는데 엿새면 6000년인 고로 6000년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땅 파는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말하자면 잃어버린 에덴동산을 회복하기 위해 에덴동산을 건설할 주인공 구세주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마귀한테 졌으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장사인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구세주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귀를 섬멸할 수도 마귀를 이길 수도 없는 고로 하늘나라를 다시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를 키우고 구세주를 만드는 데 6000년이 걸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구세주는 6000년 만에 나온다는 얘기인 고로 4000년 만에 나온 구세주는 가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2001년 7월 1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피의 원리의 완성: 불사체가 되는 것

유사 이래로 인간의 죽음을 의심해 본 사람이 있는가? 그야말로 죽음의 벽은 인류역사 이래 그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한계의 벽이라 통감했던 것이다.

4대성인의 낡은 진리를 폐하라

그러나 이제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피의 원리’라는 초능력의 무기를 인류 최초로 개발해 낸 분이 나온 것이다. 누구든지 이 무기를 배우고 익혀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생로병사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진정 인류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던 꿈과 희망이 현실화된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접하게 된다면, 말로 할 수 없는 가슴 벅찬 환희의 감동과 탄성이 저절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인류의 불행했던 지난날의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삶은, 태어나 먹고 자고 사랑하고 투쟁하고 우쭐하다, 조금 살만하면 늙고 병들어 죽어 왔던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 끔찍한 인생을 일찍이 직시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결코 안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든 전혀 다른 차원의 삶, 새로운 길을 갈구하고 모색했던 것이다. 이젠 추억이 되어야 할 인류의 거대한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세계 4대 성인도 그 최초의 발단은 인간의 최대 고통인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젠 그분들이 일궈낸 생사관과 세계관은 이젠 종식을 고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했던 인생관 생사관 존재론을 뛰어 넘는 위대한 ‘영생학의 세계관’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과거 죽음의 공포와 무지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세계 4대 성인의 사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불완전한 사상과 완전한 사상으로의 세계의 진입을 위한 그분들의 징검다리 사상을 건너, 마침내 인류의 지적 정신적 최종 목적지인 영생의 세계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죽음을 이기고 극복하는 새 시대가 우리 앞에 멋지게 펼쳐지게 된 것이다. 여전히 케케묵은 4대 성인의 정신의 틀 안에서 안주하려 고집한다는 것은 돌아가신 4대 성인이 진정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다.

>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수 천년 동안 죽었는데, 죽는 순간까지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피의 작용인 고로 그런 고로 죽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무궁토록 살아본 경험이 있는 피가 우리 인간 속에 있다고 해야 맞는 말이요 정확한 말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은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고사처럼 그분들보다 더 크고 넓은 세계로의 모험과 도전을 과감히 단행할 수준에 와 있다. 그간에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힘과 기세에 눌려 감히 영생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된 세상에서는 너무도 힘차고 당당하게 영생의 기치를 하늘 높이 들며 외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이것은 깨어 있지 않는, 복 없는 사람에겐 납득이 안 가는 얘기다. 성경의 말씀처럼 빛의 자식, 영생을 희구하는 복 있는 사람이나 ‘피의 원리’가 이 땅에 전파된 지 45년이 되어가는 이즈음에 일어날 법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진정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생각은 인류 최대의 고정관념이요, 집단의식이다.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상황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처참히 짓밟은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은 언젠가는 깨어져야 할 인류의 마지막 고정관념이자 절대믿음이다. 죽음이라는 비진리 아래서 행해진 인간의 모든 학문과 종교 예술 등은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파괴는 건설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실패 없는 곳에 성공이 있을 수 없고, 파괴없는 곳에 창조가 있을 수 없다. 오래된 낡은 관념의 집을 파괴하지 않고 온전한 영생의 관념의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애벌레가 자신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으면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비가 될 수 없으며, 잉태된 어린애가 자신의 자란 모태를 박차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의 탄생을 있을 수 없다.

피의 창조적 변화는 창조적 소수(영생주의자)에 의해 완성될 것이다

피의 원리에 의한 영생학은 바로 죽음 아래에서 행해지고 이루어진 잘못된 사상과 관념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찬란한 영생의 문명과 문화의 새 질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피의 원리는 그런 영생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기본 설명의 틀이다. 이러한 완전한 진리를 바탕으로 올바로 배우고 익혀 실천함으로써 “피의 완성” “피의 창조적 변화”의 결과인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석가는 다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세상을 바꾸는 창조적 소수(영생주의자)는 구태의연한 삶의 낡은 죽음의 관습에 빠져 있는 인류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저 유명한 미국의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은 숲 속에 서서 앞에 나 있는 두 길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깊은 생각에 잠겨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먼 먼 훗날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 놓은 것입니다”라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관념에 철저히 세뇌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告)하고 싶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해내는 용기 있는 도전자들에 의해 영생의 새 역사는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는 말이 있는데,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여행과도 같다. 모든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과 다른 영생의 길을 택할 것인가? 그 답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영생을 쟁취한 자만이 증명할 수 있다.*